

# “순천시, 선암사 차 체험관 철거하라”

**법원, 조계종 승소 판결  
‘선암사 토지 종단 재산’  
허가없는 토지사용 ‘뺨기’**

조계종 직영사찰 선암사가 종단의 동의 없이 경내에 건물을 건립한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야생차 체험관 철거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민사1단 독(재판장 임형태)은 지난 4일 오전

순천시 야생차체험관 철거소송 1선 판결에서 “순천시에서 선암사 경내에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토지에 조계종의 허가 없이 태고종 선암사의 토지사용 승낙만으로 차 체험관을 건립 운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종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순천시가 선암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야생차 체험관 토지가 종단의 재산임을 확인했다. 또 앞으로 선암사 관련 소유권 분쟁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선암사

재산관리인 법원스님은 “이번 소송을 통해 차 체험관이 들어선 토지가 조계종 선암사의 재산임을 명확히 하고, 향후 선암사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 확실한 법적근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종단은 앞으로 순천시가 항소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 시 측에서 합의를 제안할 경우 기존 체험관을 철거하는 대신 종단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종단은 지난 2011년 2월

태고종과 함께 개최한 ‘순천 선암사 분규종식 및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양측의 분규를 종식하자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순천시장을 지정된 선암사 재산관리인을 해지했다. 이로써 순천시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40여 년간 행사해 온 선암사에 대한 재산관리권이 ‘조계종·태고종 인수위원회’로 이양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수불스님은 지난 7일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에 군법당 건립 및 동국대 병원 법당 증축 기금 1억700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 왼쪽부터 아름다운 동행 사무총장 자공스님, 이사장 자승스님, 수불스님.

# “아름다운동행 통해 필요한 곳 후원”

**범어사 주지 수불스님  
군·병원 법당건립 기금  
1억7000만원 ‘보시’**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수불스님이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 총무원장)에 군법당과 동국대 병원 법당 건립 기금 등을 보시했다. 범어사 주지 수불스님은 지난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스님을 만나 1억7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기금 가운데 1억 원은 육군 3사단 법당 신축, 2000만 원은 육군 17사단 100년대 법당 신축에 사용된다. 또 5000만 원은 동국대 일산병원 법당 증축에 사용된다. 기금을 전달받은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스님은 “(수불스님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데 항상 애를

써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기부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앞장서 나눔을 실천해 달라”고 고마움을 표했다. 범어사 주지 수불스님은 “종단의 공익기부재단인 아름다운동행을 통한 후원이 많아질수록 나눔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필요한 곳에 후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성수 기자 scolee@ibulgyo.com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교육

여성이족부와 업무협약을 맺은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스님)이 청소년들의 템플스테이 체험확대를 위해 템플스테이 사찰 운영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교육’을 실시한다. 불교문화사업단은 오는 15일부터 2박3일, 5월26일부터 2박3일간 두 차례에 걸쳐 공주 태화산 한국문화원수원에서 실무교육을 진행한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란 청소년

수련활동에 필요한 공공성, 유익성, 안전성의 요건을 갖춘 곳에 한해 여성가족부가 인증해주는 제도다. 프로그램 구성이나 운영, 지도자 역할이나 능력을 평가하고, 시설 관리 및 안전성 등을 주로 검토한다.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110곳 가운데 성주 심원사가 유일하게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을 받았다. 이번 교육에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대한

불교문화사업단 여성가족부 협약 적십자사, 공주소방서 관계자가 강사로 나서 청소년활동인증제에 대한 이해와 인증신청서 작성법, 응급처치, 소방안전에 대해 강의한다. 불교문화사업단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보다 많은 템플스테이 운영사찰들이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을 획득해 청소년들의 불교문화 체험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본·말사 주지 인사 (4월2일 중무회의)

# “컨테이너 종무소 사용하지만 직영사찰 위상 확고히 다질 것”

인터뷰 / 선암사 재산관리인 법원스님 이번 소송은 순천시가 2008년 선암사 토지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 문화체육관광을 비롯해 종단 직영사찰로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다. 조계종 직영사찰 선암사 재산관리인 법원스님(총무원 호법부 조사국장·사진)은 순천시를 상대로 진행해 승소한 ‘야생차 체험관 철거소송’의 의미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조계종과 태고종 측이 인수인계 절차에 진행했다. 하지만 순천시는 “차 체험관은 시의 재산으로 인수인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양도를 거부해 종단이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스님은 “재판 과정에서 종단과 함께 소를 제기했던 태고종 선암사가 돌변해 순천시 측에 ‘보조참가해 어려움을 겪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애중심으로 노력해준 종단 정형택 변호사와 김희철 종무실장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순천시가 항소할 수도 있고 합의 제안을 해 올수도 있다”면서 “재산권을 명백히 하기 위해 건물 철거소송을 했지만, 협의를 통해 건물을 종단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종단은 태고종의 반대로 선암사 경내에 컨테이너를 임시 종무소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표소 업무를 비롯해 정부, 지자체 등 관공소 업무는 50%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법원스님은 “이번 소송 외에도 선암사 문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면서 “단기간에 해결하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순리적으로 접근해야할 사안인 만큼 불자들도 선암사에 대해 많은 관심과 호사와 김희철 종무실장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 “청년승가·재가활동가 양성에 매진할 때”

고산문화재단, 종단개혁 20주년 포럼서 ‘종단의 현재’ 진단 제와 발전방향’이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형남 변호사는 “1994년 조계종단 개혁이 출제가가 함께하는 집단 지성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면서 “창조와 전통이 공존하는 종단 가풍을 만들리라 기대했다”고 전제했다. 자정활동과 관련 김형남 변호사는 “94년 개혁 이전에는 불교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을 갖고, 종단개혁과 사회변혁을 추구하려는 세력이 존재했다”면서 “(현재는) 온당한 비판이나 합리적인 대안이 특정 파벌의 의사로 매도되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포럼은 △1부 94개혁 아젠다의 비판적 검토 △2부 94개혁정신으로 종단의 현재를 본다는 주제로 각각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김형남 변호사에 이어 △불교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본 불교자주화의 현실(조기환 전 동명대 교수) △삼권분립과 총무원장 직선제를 중심으로(유응오 삼화도량 사무국장)란 발표가 이어졌다. 2부에서는 △개혁 20년의 공과, 역대 총무원장 평가(윤남진 NGO리서치 대표) △2013년 총무원장 선거를 통해 본

종단의 개혁 현실과 과제(김종규 교단자정센터 원장) △조계종단의 문제 - 원인 분석과 대안(이도흠 한양대 교수)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고산문화재단과 지지협동조합은 “불교개혁 2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종단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점검할 방침”이라면서 “한국불교를 근본적으로 바꾼 94년 개혁정신을 되돌아보고 그 때의 문제의식으로 우리 현재를 점검해보면 극복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보다 분명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4월19일 오후1시30분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는 고산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중앙승가대 불교사회과학연구소와 지지협동조합이 주관하는 ‘미래 20년의 희망 찾기, 한국불교미래전략 심포지엄’이 열린다. 이성수 기자

# 산중총회 소집공고

산중총회법 제2조,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산중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합니다.

- 다 음 -

- 소집 일시: 불기2558(2014)년 5월 2일 금요일 (음 2014년 4월 4일) 오후 2시
- 소집 장소: 제9교구 본사 동화사 대불전
- 안 건: 1. 팔공총림 자주성 침해에 따른 수호의 건  
2. 팔공총림 존속 여부의 건  
3. 기타의 건
- 구성원자격
  - 당해 교구의 재적승으로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
  - 당해 교구본사에서 임명 받아 1년 이상 상근한 국장급 이상의 총무원
  - 당해 교구 본말사 주지로 재직 중인 비구
  - 당해 교구 말사 주지로 재직 중인 비구니. 다만 비구니 구성원의 수가 비구 구성원의 수의 5분의 1이 안될 경우 그 부족한 수만큼 법계 정덕 이상의 당해 재적 비구니 중 법계, 승랍, 연령이 높은 순으로 정한다.

- 당해 교구에 4년 이상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고, 산중총회 개최일 전 4년 이내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
- 당해 교구 선원에서 8년 이상 성만한 자
- 당해 교구 대중명부에 등재되고, 관할 교구본사에서 결계 및 포살을 8회 이상 참여한 자
- ※ 다만, 산중총회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 재적승, 재직승, 거주승 자격요건이 강화 되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교구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승 신고기간: 불기2558(2014)년 4월 12일(토) ~ 4월 18일(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구성원명부 열람기간: 불기2558(2014)년 4월 23일(수) ~ 4월 25일(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거주승신고·구성원명부열람 장소: 제9교구 선거관리위원회(동화사 종무소)
- 문 의 처: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종무소(전화: 053-985-4404)

불기2558(2014)년 4월 12일

**Ⓞ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 팔공총림 동화사 주지 성 문**